

나의 창조 목적의 사랑의 위신 세운 자, 선생

작성일 : 2012년 3월 19일 (오후 2:40~3:57)

작성자 : 정신빛

[며칠 전부터“선생은 나의 사랑의 위신 세운 자.”라고 감동을 계속 주셨습니다. 그러던 중 오후 기도 때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셔야 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싶어 기도를 하였습니다.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는지도,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안타까웠고, 이런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.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창조목적 알고 그 사랑을 이루어 드린 자가 선생님이심을 다시금 고백 드리며 기도할 때에 주신 감동입니다.]

* 성자 주님 말씀 *

나의 부푼 사랑의 기대 속 창조목적이 깨어진
이 지구 가운데,
눈 둘 곳 없고 마음 둘 곳 없고
사랑의 희망 없던 내게
내 사랑이 다시 존재케 한
나의 창조의 사랑의 위신을 세워 준 자,
그가 바로 선생이다.

타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인생,
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내 사랑의 위신
다시금 희망으로 세워 준 자,
그가 바로 선생이다.

내 부푼 기대 가지고 이 세상 창조한
본연의 그 사랑의 목적,
그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
내 사랑의 기대 또한 한이 되어
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내게
그는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운 자다.

이 세상 가운데 나의 창조목적의
그 본연의 사랑을 당당히 드높여 준 자이다.

이 세상 보란 듯이 내 이 세상 창조할 때에

기대하였던 이 사랑,
이 온전하고 진실한 사랑 이루어 내 준
그는 내 사랑의 위신 세운 자요,
내 사랑의 존재 이유된 자다.

그로 인해 내 사랑이 완성되었다.
하늘과 땅의 사랑 온전히 결합하여
일체된 사랑 이루었다.

그러하기로 오직 그로 말미암아서야,
나와 이 사랑 이룰 수 있음이라.

그의 혈통이 아니고서는
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
그가 이끌지 않고서는
내 이 온전한 사랑 이룰 자,
이 세상 그 누구도 없음이라.

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내 사랑의 위신
보란 듯이 당당히 일으켜 세워 준 그가
나의 사랑의 존재됨의 이유임을
네 증거하여 다오.

그로 인해 이 세상 향한 내 사랑 거두지 아니하고
다시금 희망으로 이 사랑의 역사 펴 나가는 이유가
됨을
내 사랑의 증인되어 증거해 다오.

(기도를 시작할 때에 지금 이 세상 인생들은 하나님
이 주신 모든 것들을 쓰고 마시고 누리며 사는데도
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이
세상 가운데 그 눈 두실 곳도, 마음 두실 곳도 없으
실 것 같다고 눈물로 기도 했습니다.단 하나의 눈 두
실 곳, 마음 두실 곳 되신 선생님을 매이게 한 이 민
족의 죄를 두고 기도했습니다)

네 말이 맞다.
이 세상 가운데 내 지금 눈 둘 곳도,
마음 둘 곳도, 내 발길이 향할 곳도
단 한 곳도 없다.
그러나 내 사랑의 위신 세운 자,
그가 있기로
그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기로
이 세상 향한 내 사랑도 존재되고 있다.

그가 아니고서야 나의 심판의 손이
내려진다 함을 말하지 아니하였더냐...

섭리야, 내 사랑아.
너희도 너희 선생과 같이
나의 사랑의 위신 세워 주는
내 사랑의 신부들이 될 테냐...
그러해줄 것이냐...

유일한 나의 사랑의 존재의 이유된 내 섭리야.
선생과 같이 나의 사랑의 존재인 섭리야...
너희 그러해 줄 테냐...

사랑아.
나의 이 사랑의 역사 열매 맺어지는 때가 다다랐다.
너희 내 창조목적의 그 사랑의 근원 열매되어
나의 이 세상 향한
사랑의 위신 세워 주는 자들이 되어 줄 게냐...

내 사랑의 기대로 너희 바라보아도 되겠느냐.
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
너희 향한 내 이 마음은
애가 타고 애가 탄다.
애가 탐의 눈물이 흐르는구나.
마지막 내 최고의 열매 채 가려는
저 사탄 놈들의 군침 삼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.

나의 창조목적의 사랑의 열매 맺는
사랑의 위신 세운 자가 되어 줄 게냐.
다시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열매 될 것이냐...

사랑아.
선생 손 붙들여라.
선생만 붙잡고 나아오라.
그러할 때 너 또한
온전한 내 창조목적의 사랑 열매되어
내 품에 거할 그 날을 볼 것이다.

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.
끝까지다.
끝까지 이 사랑 지켜 내고 이겨 내어
내 마지막 사랑의 위신 되는
나의 신부들이 되어 다오.

진실로 애탐으로
너를 사랑으로 바라보노라.

(이후 선생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들려왔습니다.)

선생님 말씀

사랑아, 신부야.
진정 주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
이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,
사랑의 주인공 되는 신부가 되자.

내 끝까지 너희 이끌리다.
꼭 하나님 사랑의 역사
승리의 역사 이루어 드리는 사랑의 신부들이 되자.
너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대상체다.
하나님 사랑의 존재 이유요, 근본체,
목적된 인생임을 잊지 말아라.

우리 날마다 이 땅 가운데
하나님의 신부로서
하나님의 사랑의 위신 세워 드리는
사랑의 신부들이 되자.

그리고 당당히 멋있게
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
사랑의 증인들이 되자.
내 끝까지 함께 할 테니
우리 함께 주 하나님의
그 사랑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
사랑의 역사 승리로 이끌어
이 땅 만방에 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
신부의 인생 되길 축원한다.

꼭이다.
하나님의 이 세상 향한 그 뜻
이루어 드리자.

함께하니 좋구나.
함께하니 힘이 난다.
사랑한다.

우리 함께 꼭

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,
멋지게 이루어 드리는 신부들 되자.
잊지 말아라.
늘 너와 함께함을...
사랑해.